

경남 함양군의 서원판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ublications of Seowon in Hamyang, Kyongsang-Namdo

윤 상 기(Yoon, Sang-Kee)**

◁ 목 차 ▷

- | | |
|-------------------|-----------|
| 1. 들어가면서 | 5. 판본의 성격 |
| 2. 함양군의 사정 | 6. 나오면서 |
| 3. 함양군의 서원에 대한 개관 | <참고문헌> |
| 4. 서원판본 | |

< 초 록 >

이 글은 경남의 함양군에 소재한 서원들에서 1910년 경술국치 이전에 간인한 판본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현재의 함양군 지역에 한 때라도 존속했던 서원은 모두 14개이다. 이들 중 6개 서원에서 11종의 판본을 간인했고 5종의 판본을 간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간인사실이 확실한 것은 濳溪書院의 2종의 「文獻公實紀」, 「童蒙須知」 2종의 「介庵先生文集」, 「河東鄭氏派譜」, 西山書院의 「採薇軒全先生實記」, 松湖書院의 「孤隱先生實記」, 龍門書院의 「葛川先生文集」, 「桐溪先生文集」, 「瞻慕堂先生文集」 등이다. 간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는 濳溪書院의 「介庵先生文集」과 「文獻公實紀」, 澹洲書院의 「玉溪先生文集」, 柏淵書院의 「蓮峯先生文集」과 「尹忠憲公實紀」 등이 있다. 이들 판본들에 대해서는 서지사항을 정밀기술하고 서원판본임을 밝히거나 간인 가능성을 제시했다. 판본의 분석을 통해서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들을 밝혔다.

첫째, 集部의 別集類와 史部의 傳記類를 주로 간인했다

둘째, 17~18C에는 목판본으로만 간인하고 19C에는 목활자본을 많이 간인했다.

셋째, 16종의 판본 모두가 배향자와 직·간접으로 관련 있는 것들이며, 특히 배향자와 직접 관련된 배향자의 문집이나 실기를 주로 간인했다.

要語 : 함양, 서원판본, 濳溪書院, 澹洲書院, 柏淵書院, 西山書院, 松湖書院, 龍門書院

* 본 논문은 2005학년도 동의대학교 자체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skyoon@deu.ac.kr)

접수일: 2005년 11월 30일 최초심사일: 2005년 11월 30일 심사완료일: 2005년 12월 17일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ublications of seowon(서원) in Hamyang(함양), Kyongsang-Namdo(경상남도). The publication period of books is limited to 1910 that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began.

The 14 seowons were in the Hamyang district of present time. The 6 of these seowons are published 11 books and there is a possibility which will published 5 books. The books whose publishing is positive are 2 editions of *Munheon-gong silgi*(『文獻公實紀』), *Dongmongsuji*(『童蒙須知』), 2 editions of *Gaeam-seonsaeng munjib*(『介庵先生文集』) and *Hadong jeong-ssi pabo*(『河東鄭氏派譜』) of Namgye Seowon(濼溪書院), *Chaemiheon-jeon-seonsaeng silgi*(『採薇軒全先生實記』) of Seosan Seowon(西山書院), *Goun-seonsaeng silgi*(『孤隱先生實記』) of Songho Seowon(松湖書院), *Galcheon-seonsaeng munjib*(『葛川先生文集』), *Donggye-seonsaeng munjib*(『桐溪先生文集』) and *Cheommodang-seonsaeng munjib*(『瞻慕堂先生文集』) of Yongmun Seowon(龍門書院). Being possibility of publication are *Gaeam-seonsaeng munjib* and *Munheon-gong silgi* of Namgye Seowon, *Okgae-seonsaeng munjib*(『玉溪先生文集』) of Dangjeu Seowon(滄洲書院) and *Yeonbong-seonsaeng munjib*(『蓮峯先生文集』) and *Yun-chungheon-gong Silgi*(『尹忠憲公實紀』) of Baegyeon Seowon(柏淵書院). The bibliographies of these publications are described in detail and clearly identified as the publications of Seowons or its possibility. On examination, it revealed some facts as follows:

First, individual works(別集) of the class of Collection of Works(集部) were published mainly.

Second, only xylographic books were published in 17 to 18C and much wooden movable types books were published in 19C.

Third, all of the 16 books are directly and indirectly related to the worshiper. Especially work(文集) or history(實紀) of worshipers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the worshiper were published mainly.

Key words : Hamyang, publications of seowon, Namgye Seowon, Dangjeu Seowon, Baegyeon Seowon, Seosan Seowon, Songho Seowon, Yongmun Seowon

1. 들어가면서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으로는 국가에서 관리·운영하는 국영교육기관과 지방의 유림이나 개인이 관리·운영하는 사립교육기관이 있었다. 국영교육기관으로 중앙에는 성균관과 사학이 있었고 지방에는 각 부, 군, 현마다 향교가 있었다. 그리고 사립교육기관으로는 서원과 서당이 있었다.

이 중 서원은 선현을 제사하는 祠와 자재를 교육하는 齋를 합하여 조선조 중엽부터 세우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서원은 기본적으로 유생들이 모여 강당에서 학문하는 강학의 기능과 祠宇에 선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 드리는 제향의 기능을 갖춘 곳이다. 그 외에도 도서관적 기능과 향촌자치 운영기구로서의 기능도 함께 갖추고 있었다. 아무튼 서원은 道學을 이상으로 삼던 사대부 사림 세력들의 정신 세계가 반영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성리학이 만들어낸 가장 대표적인 조선시대의 산물이다.¹⁾

서원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 때문에 그 동안 단일주체로서는 상당한 양의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세부주체를 들여다보면 서원에서의 출판물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진했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글은 경남의 함양군에 소재한 서원들에서 간인한 판본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판본은 함양군에 소재했거나 소재하고 있는 서원에서 간인한 것으로 간인시기는 1910년 경술국치가 있기 전 조선시대까지로 한정한다. 간인시기를 1910년으로 제한한 것은 조선조 말기에 흥선대원군에 의한 대규모의 서원·사우의 철폐가 있고 난 후, 주로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에 복설 또는 신설된 서원들은 근대화와 서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에 영향을 받아 전통적인 서원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시기에 간인된 서적 역시 서원 본래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판본의 간인처에 대한 한계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白雲洞書院(현재의

1) 안장현 사진, 이상해 글, 『書院』(서울: 열화당, 1998), 7.

紹修書院)에서 비롯한 조선의 서원은 조선후기에 와서는 인물위주로 서원이濫設되어 祠宇와의 구별이 모호해진다. 또한 창설된 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서원의 기능과 명칭 상의 변화를 겪는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는 書院版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술국치가 있는 1910년 이전에 설립된 서원을 대상으로 하되, 창설 때부터 1910년까지의 기간 내에 서원으로 불렸던 시기와 祠, 影堂 혹은 精舍로 불렸더라도 교육기능을 수행한 증거가 되는 강당과 동·서재를 전부 혹은 일부를 갖추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향사기능과 더불어 교육기능을 함께 수행했음을 입증하는 기록이 있는 시기에 간인된 판본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분명한 간인의 기록은 없지만 장관기가 있어서 간인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간인년도가 불분명하지만 1910년 이전에 간인된 것으로 추정되는 판본들도 참고로 함께 언급 하겠다.

2. 함양군의 사정

함양군은 경상남도의 서북단에 위치하며, 소백산맥의 최고봉이자 영남의 진산인 지리산을 남쪽에 두고 있다. 동쪽으로는 산청군, 서쪽으로는 전북 남원시와 장수군, 남쪽으로는 하동군, 북쪽으로는 거창군과 연결하고 있다. 면적 725.09km²에 동서 간 거리는 26.5km, 남북 간 거리는 50.5km로 지형이 대체로 남북이 길고 동서간의 거리는 남북의 반 정도인 目字形이다.²⁾

함양군은 신라시대 이래 速舍, 舍城, 天嶺, 許州, 舍陽 등의 지역 명으로도 불리어져 왔는데, 그 변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라시대 초기에는 速舍郡 또는 舍城이라 불리어져오다가 경덕왕 16년(757)에 天嶺郡으로 개칭되었다.³⁾

2) http://www.hamyang.go.kr/kor/frame.asp?top=/kor/inc/topmenu.asp&main=/kor/hamyang/01_01.asp (2005. 8. 1 검색)

3) 「三國史記」. “天嶺郡 本速舍郡 景德王改名 今咸陽郡.”

고려시대에는 성종 14년(995)에 許州都로 승격되었다가 현종 3년(1012)에 淸陽郡으로 강등되었다. 淸陽郡이란 표기는 인종 23년(1145)에 金富軾(1075~1151) 등이 편찬한 「三國史記」에는 咸陽郡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후 한자 표기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⁴⁾ 명종 2년(1172)에는 함양현으로 강등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태조 4년(1395)에 함양군으로 승격되었다가 인조 7년(1629)에 함양 출신 梁景鴻의 역모 사건으로 함양현으로 강등되었으나, 인조 21년(1643)에 다시 함양군으로 復郡 되었다. 영조 5년(1729)에 咸陽府로 승격되었다가 정조 12년(1788)에 다시 함양군으로 복군 되었다.

그 후 면의 병합과 분리, 읍의 설치 등을 거쳐 현재 함양읍 1읍과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백전면 및 병곡면의 10개 면을 관할하고 있다.

그동안 함양군의 인구수의 변천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표 1>과 같다.⁵⁾

<표 1> 함양군의 인구수

연도	1789	1930	1940	1949	1960	1970	1980	1990	2000	2003
인구수	24,198	79,249	77,360	102,284	113,004	110,191	82,782	55,014	41,943	42,920

정조 13년(1789)의 인구수는 24,198명이었으며, 1960년대까지는 늘어났다. 그 후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으로 인해 점차 줄어들어 2003년 현재 42,920명이 거주하고 있다.

조선후기 함양군의 대표적인 士族가문으로는 咸陽朴氏, 咸陽呂氏, 咸陽吳氏, 河東鄭氏, 咸安趙氏, 豐川盧氏, 晉州姜氏, 晉州河氏, 南原梁氏, 新昌表氏, 蘭浦鄭氏, 金海許氏 등이 있으며⁶⁾ 조선시대 함양 출신의 중요 인물들을 몇몇 들여보

4) 주 3) 참조.

5) ① KOSIS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nso.go.kr/> (2005. 8. 13 검색)

② 함양군수인물역사연표 咸陽郡守人物歷史年表, <http://www.hamyang.org/yuksa%20yunpyo.htm> (2005. 8. 5 검색)

6)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서울: 一潮閣, 1995), 6.

면 다음과 같다.

池谷面 開坪里에 집성촌을 이룬 河東鄭氏 가문의 名祖 一蠹 鄭汝昌(1450~1504)은 영남학파의 宗祖인 佔畢齋 金宗直(1431~1492)의 문인으로 성리학의 대가였으며, 향촌에서는 濼溪書院과 龍門書院에서 배향하고 있다.

柳林面 玉梅里와 池谷面 평촌리에 집성촌을 이룬 豐川盧氏 가문의 名祖 玉溪 盧禎(1518~1578)은 清白吏로서 예조판서 등을 지냈으며, 향촌에서는 漚洲書院에서 배향하고 있다.

晉州姜氏 가문의 名祖인 琴齋 姜漢(1454~?)은 서예와 학행으로 뛰어났으며, 介菴 姜翼(1523~1567)은 南冥 曹植(1501~1572)의 문인으로 정여창의 심오한 사상을 전수받을 만큼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다. 향촌에서 강한은 龜川書院에서 강익은 남계서원에서 각각 배향하고 있다.

水東面 효리에 집성촌을 이룬 南原梁氏 가문의 名祖인 逸老堂 梁灌(1437~1507)은 청백리였고, 그의 손자 九拙岩 梁喜(1515~1580)는 「明宗實錄」의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향촌에서는 구천서원에서 함께 배향하고 있다.

3. 함양군의 서원에 대한 개관

현재의 함양군 지역에 한 때라도 존속했던 서원은 모두 14개로 <표 2>와 같다

<표 2> 함양군의 서원들

서원명	창건년도* /사액년도	배향자	비 고
龜川書院	숙종 28(1702)	朴孟智 梁灌 姜漢 表沿洙 梁喜 河孟寶 梁弘濤	고종 5년(1868) 훼손 1983년 복원
濼溪書院	명종 7(1552)/ 명종 21(1566) 선조 40(1607)	鄭汝昌 鄭蘊 姜翼 俞好仁(별사)	선조 30년(1597) 정유재란 때 소실 선조 36년(1603) 羅村으로 이건 복원 광해군 4년(1612) 咸陽郡 水東面 院坪里로 이

경남 함양군의 서원판본에 대한 연구

	再賜額	鄭弘緒(별사)	건 중건 인조 20년(1642)에 별사 설립 고종 5년(1868) 별사는 훼손 대원군 서원철폐 시 존속
鹿峯書院	현종 9(1843)경	劉彥一	그 후 훼손
澇洲書院	선조 12(1579)/ 현종 1(1660)	盧禎 鄭希輔(별사)	新溪書院으로 창건 고종 5년(1868) 훼손
德巖書院	인조년간 (1623~1649)	李之蕃 朴坪 李希顔 李維 寓績	경종 2년(1722) 철폐
道谷書院	숙종 27(1701)	趙承禱 鄭復周 盧叔全 盧友明 盧士豫 鄭秀民	고종 5년(1868) 훼손 2000년 복원
柏淵書院	현종 11(1670)	崔致遠 金宗直	栢淵祠로 창건 그 후 서원으로 승격 고종 5년(1868) 훼손
西山書院	현종 7(1841)	全五倫	고종 5년(1868) 훼손
松湖書院	순조 30(1830)	李智活 李이 李之蕃	고종 8년(1871) 훼손 1937년 복원
龍門書院	선조 16(1583)/ 현종 3(1662)	鄭汝昌 林薰 林芸 鄭蘊	숙종 9년(1683) 중수 고종 5년(1868) 훼손
井山書院	1959	許周 許穆 許方佑 許元枳	
靑溪書院	1917	金駟孫	靑溪精舍로 창건 연산군 4년(1498) 戊午土禍 때 廢舍 1917년 祠宇 건립 1921년 서원으로 승격
華山書院	1967	林大全	祠宇로 창건 1988년 서원으로 승격
黃巖書院	숙종 41(1715)/ 숙종 43(1717)	郭越 趙宗道 鄭庸(별사) 劉蓋(별사)	고종 5년(1868) 훼손 2001년 黃巖祠 복원

* 창건년도는 서원으로 창건한 때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사유로 창건하여 서원으로 승격 되었을 경우에는 사유의 창건년도를 표시하였다.

이들 중 조선시대에 창건된 서원들은 남계서원을 비롯하여 모두 11개 서원이
고, 靑溪書院, 井山書院 및 華山書院의 3개 서원은 경술국치가 있는 1910년 이후
에 창건되었다.

이들 서원들을 창건년도순으로 정렬하여 창건시기의 경향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창건시기별로 본 함양군의 서원들

서원명	창건년도	세기	왕조	서원설립에 관한 시기 구분		
				鄭萬祚 ⁷⁾	元永煥 ⁸⁾	丁淳睦 ⁹⁾
濼溪書院	명종 7(1552)	16C	명종조	초창기	창설기	藏修優位時代
滄洲書院	선조 12(1579)		선조조	발전기	발전기	
龍門書院	선조 16(1583)		인조조			
德巖書院	인조년간 (1623~1649)	17C	현종조	남설기	발전기	享祀優位時代
柏淵書院	현종 11(1670)	18C	숙종조			
道谷書院	숙종 27(1701)		숙조조	남설기		
龜川書院	숙종 28(1702)					
黃巖書院	숙종 41(1715)	19C	순조조	훼손기	정리기	書院整備時代
松湖書院	순조 30(1830)		현종조			
西山書院	현종 7(1841)		현종조			
鹿峯書院	현종 9(1843)경	20C	일제강점기			
靑溪書院	1917		해방 이후			
井山書院	1959					
華山書院	1967					

함양군 소재 14개의 서원들 중 사액을 받은 서원은 남계서원, 당주서원, 용문서원 및 黃巖書院의 4개 서원이고, 나머지 10개 서원은 미사액 서원들이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1910년 이전에 창건된 11개 서원들 중 조선시대에 서적을 한 번이라도 간인했거나 책판을 장치했던 것으로 밝혀진 곳은 남계서원, 당주서원, 柏淵書院, 西山書院, 松湖書院 및 용문서원의 6개 서원이고, 나머지 5개 서원은 판본이나 장판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7) 鄭萬祚, “서원 書院: 서원의 전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2 (성남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11.
 8) 元永煥, “江原地方의 書院址 調査,” 韓國鄉土史研究全國協議會 편 『毀撤書院調査報告』 ([慶山市]: 韓國鄉土史研究全國協議會, 1993) (鄉土史研究叢書 第4冊, 44).
 9) 丁淳睦, 『韓國書院教育制度研究』 (대구: 嶺南大學校出版部, 1979), 25-38.

4. 서원판본

조선시대에 서적을 간인한 서원들과 그 서원의 판본들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먼저 서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판본들에 대해서는 상세한 목록을 기술한 후 간략한 해제와 더불어 간인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간인사실이 확실한 판본들을 먼저 설명하고, 장관기만 있거나 간인년도가 불분명하지만 1910년 이전에 간인된 것으로 추정되는 판본들은 그 뒤에 따로 언급하겠다.

4.1 濼溪書院

위치: 慶尙南道 咸陽郡 水東面 院坪里 586

창건: 명종 7년(1552)

배향자: 鄭汝昌(1450~1504) / 鄭蘊(1569~1641) · 姜翼(1523~1567)

別祠: 兪好仁(1445~1494) · 鄭弘緒(1571~1648)

명종 7년(1552)에 강익이 주도하고 함양군수 徐九淵이 지원하여 조선조 五賢의 한 사람인 名儒 정여창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였으며, 명종 21년(1566) 6월에 강익 등의 상소로 사액을 받았다. 선조 30년(1597)의 정유재란 때 소실되었지만 선조 36년(1603)에 羅村으로 이건·복원하고, 선조 40년(1607)에 다시 사액을 받았다. 광해군 4년(1612)에 다시 현 위치인 수동면 원평리로 이건·중건하였다. 숙종 1년(1675)에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인 정운을 추배하고, 숙종 15년(1689)에는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이 서원을 창건한 강익을 추배하였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때도 훼손되지 않고 존속하였다. 1974년 2월 16일에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91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이 서원은 영남 右道의 대표적인 서원으로서,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건립되었으며, 소수서원, 臨臯書院, 首陽書院에 이어 네 번째로 사액을 받았다 別祠

는 인조 20년(1642)에 조선 초기의 문신·시인인 兪好仁과 인조조의 문인인 鄭弘緒를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였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고종 3년(1868)에 훼손되었다. 이 서원에서 간인된 판본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文獻公實紀 / 鄭述(朝鮮) 編. -- 木板本.

被傳者: 鄭汝昌(1450 ~1504)

정구(1543~1620)가 편한 정여창의 사실 등이 실려 있는 책으로, 文獻은 남계서원의 주향자인 정여창의 諡號다. 인조 13년(1635)에 남계서원에서 정구가 광해군 연간에 編한 것에 張顯光(1554~1637)의 발문을 붙여 간행한 책이다. 이 책은 찾지 못했으나, 영조 19년(1743)에 간인한 중간본¹⁰⁾에 있는 인조 13년(1635)에 지은 장현광의 발문에 남계서원 유생들이 정구가 成編한 「文獻公實紀」 책을 이미 새겼다는¹¹⁾ 사실이 밝혀져 있어서 남계서원에서 간인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간인년도는 인조 13년(1635) 9월 下浣에 장현광이 지은 발문의 작성 연월일로만 추정된다.

童蒙須知 / 朱熹(南宋) 著 ; 姜漢(朝鮮) 書. -- 木板本(重刊). -- [咸陽 : 藍溪書院], [仁祖 19(1641)以前]

22張 : 四周單邊 半郭 26.0 × 18.7 cm, 有界, 5行8字, 內向2葉花紋魚尾 ; 33.1 × 23.1 cm

陰刻本 印

跋: 正德十二年(1517)…安陰縣監尹孝聘…

重刊跋: …將就泯沒乃與瀘溪士子謀鋟梓… 鄭蘊…

板書者: 姜漢(1454 ~?)

10)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장본 (고 920.0513정여창 ㄱ)

11) “近有寒崗[岡]先生 甚惜其言之無傳 遂收拾於亡失之餘 成此一冊 … 咸郡乃先生鄉也 曾爲先生 創書院 而祀之矣 郡儒旣刊是冊 …”

중국 송나라 때 朱熹(南宋, 1130~1200)가 지은 아동교육교재로서, 어린이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와 예절을 적은 修身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아동교육용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간기는 없으나 중간발을 통하여 서원 간인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권말에 있는 정은(1569~1641)의 중간발에 의하면, “장차 泯沒될 것 같아 남계서원의 士子들과 더불어 鋟梓를 도모한다.”¹²⁾고 하였다. 死後 숙종 1년(1675)에 남계서원에 추배될 만큼 남계서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은이 생전에 남계서원의 士子들과 더불어 鋟梓를 도모한 것으로 보아, 이 책은 남계서원에서 간인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간인한 해는 정은이 지은 발문의 작성년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추정하기가 어려우나, 늦어도 정은이 죽은 인조 19년(1641) 이전이 될 것이다. 이 책의 글씨를 쓴 강한(1454~?)은 조선 전기의 문인이자 서예가로서, 남계서원을 창건하고 후에 자신이 창건한 그 서원에 추배된 강익의 선조이다. 그리고 이 책의 간인을 주도한 정은은 강익보다 14년 앞서 남계서원에 추배되었다. 판본은 계명대학교(고172.5주희ㄷ)에서 소장하고 있다.

介庵先生文集 / 姜翼(朝鮮) 著 ; 梁天翼(朝鮮) 等編. -- 木板本. -- [咸陽] : [濼溪書院], [肅宗 32(1706)序]
上下卷1冊 : 四周單邊 半廓 21.2 × 17.0 cm. 有界, 10行20字, 內向有紋魚尾 : 32.9 × 22.3 cm

版心題: 介庵集

序: 隆慶丁卯(1567)後八百有四十甲子丙戌(1706)之陽月下浣八溪後學鄭岐胤謹序

跋: 龍集壬寅(1662)冬十月既望後學河南鄭光淵謹跋

跋: 崇禎甲申後丙寅(1686)三月上浣後學龍城梁天翼謹跋

刊記[실은 舊刊記]: 崇禎甲申後丙寅(1686)仲春日咸陽濼溪書院開刊

12) 목록 기술사항 참조.

남계서원에 추배된 강익(1523~1567)의 시문집으로 介庵은 강익의 號들 중 하나다. 저자의 손자인 강전이 유고를 정리하여 정광연 등과 함께 편집에 노력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 그 후 다시 증손인 姜大徵이 편집에 착수하여 양천익(1638~?) 등과 함께 補編하여 개간하였다. 卷上에 詩, 書, 記가 수록되어 있고, 卷下에는 世系, 年譜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말에 ‘崇禎甲申後丙寅(숙종 12년 1686)仲春日 咸陽 濫溪書院 開刊’이라는 간기가 있으나, 간기에 나타나는 개간년도보다 늦은 숙종 15년(1689)에 申厚命(1638~?)이 쓴 該曹關文과 숙종 32년(1706)에 鄭岐胤이 쓴 서문이 있어서 숙종 32년(1706) 이후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문의 작성년월일은 ‘隆慶丁卯後八百有四十甲子丙戌之陽月下浣’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상당히 특이한 표시 방법이다. 우선, ‘隆慶丁卯’는 명종 22년(1567)으로서 저자인 강익이 죽은 해를 가리킨다. ‘八百有四十甲子’는 日字를 간지로 표시한 것으로, 840갑자는 50,400일이다. 이를 年으로 환산하면 138년 1개월이 된다. 따라서 ‘隆慶丁卯後八百有四十甲子丙戌之陽月下浣’은 저자가 죽은 지 139년째가 되는 숙종 32년(1706)의 10월 하순이 된다.

이 책의 간기에 나타나는 개간년도가 該曹關文의 작성년도나 서문의 작성년도보다 이른 것은 다음의 경우 중 하나로 추측된다. 첫째는 이 판에 앞서 간기의 개간년도인 숙종 12년(1686)에 초판을 간행했을 가능성이다. 둘째는 먼저 본판에 해당하는 정서본을 완성해두었거나 혹은 판각까지 완성한 후에 어떤 연유로 인하여 인출을 하지 못하다가, 서문의 작성년도인 숙종 32년(1706) 무렵에 該曹關文과 서문을 보각한 후에 인출하면서, 간기의 개간년도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가능성이다.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鄭岐胤이 서문에서 초판의 간인사실을 언급했음 직하나, 그러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후자의 경우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간기가 분명한 관계로 該曹關文과 서문이 없는 초판이 간행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다.

간기의 개간년도보다 늦은 숙종 32년(1706) 무렵에 인출하면서도 간기를 산삭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과 이 책을 찍은 책판이 현재 남계서원의 장판각에 장치되

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남계서원에서 간인한 것으로 보아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책판은 그 후 追刻된 판이 더하여져 모두 186판이 1979년 12월 29일에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186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판본은 장서각(D3B-379A, D3B-379A=2)에서 소장하고 있다.

文獻公實紀 / 鄭述(朝鮮) 編 ; 李緯(朝鮮) 修正. -- 木板本(重刊). -- [咸陽 : 濼溪書院, 英祖 19(1743)

64張 : 遺墨, 四周雙邊 半郭 21.9 × 17.1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下向 2葉花紋魚尾 ; 32.4 × 22.7 cm

被傳者: 鄭汝昌(1450 ~1504)

刊記: 癸亥(1743)仲秋重刊

藏板記: 濼溪書院藏板

跋: …崇禎八年乙亥(1635)九月下浣玉山後人張顯光謹跋

重刊跋: …崇禎乙亥後百有九年癸亥(1743)五月下澣後學三州李緯謹跋

앞에서 설명한 同名의 책의 重刊本이다. 권말에 있는 영조 19년(1743) 5월 下澣에 작성한 이재(1680~1746)의 중간발문과 표제지에 있는 ‘癸亥(1743)仲秋 重刊’이라는 간기와 ‘濼溪書院 藏板’이라는 장판기를 통해, 영조 19년(1743) 8월에 남계서원에서 중간했음을 알 수 있다.

판본은 계명대학교(고920.0513정여창), 고려대학교(B12-A176), 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57-가410-2), 국회도서관(古 920.051 ㅈ271 口), 장서각(2-739), 충남대학교(史 328) 등을 포함하여 여러 곳에서 소장하고 있다.

介庵先生文集 / 姜翼(朝鮮) 著 ; 姜大徵(朝鮮) 編. -- 木板本. -- [咸陽 : [濼溪書院], [憲宗 12(1846)以後]

上下卷 1冊 : 圖, 四周單邊 半郭 21.9 × 17.4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 32.7 × 22.1 cm

版心題: 介庵集

序: 隆慶丁卯(1567)後八百有四十甲子丙戌(1706)之陽月下浣八溪後學鄭岐胤謹序

跋: 龍集壬寅(1662)冬十月既望後學河南鄭光淵謹跋

跋: 崇禎甲申後丙寅(1686)三月上澣後學龍城梁天翼謹跋

刊記[실은 舊刊記]: 崇禎甲申後丙寅(1686)仲春日咸陽濫溪書院開刊

앞에서 설명한 同名의 책에 헌종 12년(1846)에 강익의 8대손인 姜延祚가 쓴 묘갈명을 추각하여 인출한 책이다. 권말에 前板과 동일한 ‘崇禎甲申後丙寅(1686)仲春日 咸陽 濫溪書院 開刊’이라는 간기가 있으나, 간기에 나타나는 개간 년도보다 후인 숙종 15년(1689)에 申厚命이 쓴 該曹關文, 숙종 32년(1706)에 鄭岐胤이 쓴 서문, 헌종 12년(1846)에 강익의 8대손인 姜延祚가 쓴 묘갈명 등이 추가되어 있으며, 그 중 該曹關文과 서문은 前판을 人출할 때 추각한 것이고, 묘갈명만 이 판을 人출하면서 추각한 것이다.

간인년은 미상이나 헌종 12년(1846)에 姜延祚가 쓴 묘갈명이 있으므로 그 후에 간인된 것은 분명하다. 구 간기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둔 것과 앞서 밝혔듯이 이 책을 찍은 책판이 현재 남계서원의 장판각에 장치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역시 남계서원에서 간인한 것으로 보아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판본은 규장각(奎 12647)에서 소장하고 있다.

河東鄭氏派譜 / 鄭煥周(朝鮮) 等編. -- 木活字本(重刊). -- [咸陽: 濫溪書院, 光武 1(1897)

4卷4冊: 圖 ; 32.8 × 22.8 cm

序: 崇禎四庚寅(1830)·宋釋圭·

重刊序: ·鄭淳元·

重刊序: ·鄭在箕·

跋: 庚寅(1830)·鄭東老·

跋: 壬申(1872)…鄭煥周…

跋: …鄭煥植…

刊記: 崇禎二百七十年上元丁酉(1897)仲夏濼院活印

河東鄭氏 집안의 世系와 事蹟을 수록한 파보로 정여창(1450~1504)의 후손인 정환주(1833~1899) 등이 엮었다. 서원의 제향자 중 정여창과 別祠의 제향자 중 정홍서(1571~1648)의 본관이 河東이다.

권말에 ‘崇禎二百七十年上元丁酉(1897)仲夏 濼院 活印’이라는 간기가 있어서 광무 1년(1897) 5월에 남계서원에서 활자로 인출했음을 알 수 있다. ‘濼院’은 濼溪書院을 줄여서 표현한 것이다. 이 책에 수록된 각종 서·발문에 의하면, 순조 30년(1830)에 처음 파보가 간행되고, 고종 9년(1872)에 이어 三刊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인본은 규장각(古 929.1-J462h-v.1-4)에서 소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각종 기록에 근거하여 1910년 이전에 남계서원에서 간인한 것으로 밝혀진 6종의 판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6종의 판본 외에도 1910년 이전에 남계서원에서 간인된 것으로 짐작되지만, 확실한 간인처, 간인자와 간인년이 밝혀지지 않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는 「介庵先生文集」과 「文獻公實紀」가 있다.

介庵先生文集 / 姜翼(朝鮮) 著 ; 梁天翼(朝鮮) 等編. -- 木板本. -- 咸陽 : 濼溪書院, 肅宗 12(1686)

跋: 龍集壬寅(1662)冬十月旣望後學河南鄭光淵謹跋

跋: 崇禎甲申後丙寅(1686)三月上澣後學龍城梁天翼謹跋

刊記: 崇禎甲申後丙寅(1686)仲春日咸陽濼溪書院開刊

앞서 숙종 32년(1706)경에 인출한 「介庵先生文集」을 다루면서 약간 언급했던 판본으로 아직 실물이 발견되지 않아 간행 가능성만 추측되는 것이다. 만약 간기에 기록된 대로 숙종 12년(1686)년 2월에 남계서원에서 개간하고 바로 인출하였

다면, 당연히 숙종 15년(1689)에 申厚命이 쓴 該曹關文과 숙종 32년(1706)에 鄭岐胤이 쓴 서문은 없는 상태의 초판이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당시에 실제로 인출하였을 가능성은 많지 않으나, 간기의 표기가 명확하므로 인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다. 이 판본의 간행 여부는 앞으로 실물이나 관계 기록의 발견이 있어야 분명히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文獻公實紀 / 鄭述(朝鮮) 編. -- 木板本(重刊). --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肅宗 15(1689) 識]

上下卷1冊 : 四周單邊 半郭 22.8 × 17.2 cm, 有界, 9行18字 註雙行, 上下花紋魚尾 ; 32.2 × 21.8 cm

被傳者: 鄭汝昌(1450 ~1504)

跋: 崇禎八年乙亥(1635) 九月下浣玉山後人張顯光謹跋

앞에서 다룬 인조 13년(1635)의 초간본에다 숙종 15년(1689)에 정여창의 6세손인 鄭世楨과 7세손인 鄭熙章이 신도비를 세우는 것을 계기로 그 신도비명등을 부록으로 첨부하고 빠진 계보를 보충하여 간인한 것이다.

이 판본의 간인지나 간인자에 대한 확실한 기록은 찾지 못했다. 다만 추측하건대, 앞서 언급한 초간본이나 중간본이 남계서원에서 간인되었으므로 시기적으로 그 중간에 보편하여 인출한 이 판본도 남계서원에서 간인했을 것으로 짐작될 뿐이다. 판본은 규장각(奎 1714)에서 소장하고 있다.

4.2 澹洲書院

위치: 慶尙南道 咸陽郡 池谷面 功培里

창건: 선조 12년(1579)

배향자: 盧禎(1518 ~ 1578)

別祠: 鄭希輔(1488 ~ 1547)

선조 12년(1579)에 명종·선조조의 문신인 노진을 추모하기 위해 新溪書院으로 창건했다. 명종 19년(1564) 봄에 노진이 남계천 서쪽 秋潭 위에 교육을 위해 세웠던 申義齋가 강당이 되었다. 그 후 당주서원으로 개칭하였으며,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고종 5년(1868)에 훼손된 후 복원되지 못하였다.

別祠는 언제 창건했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조선 중기의 유학자인 정희보를 제향하였다. 간인사항이 분명한 판본은 없고, 다만 책판목록에 장판기록이 있는 것으로 「玉溪先生文集」이 있다.

玉溪先生文集 / 盧禎(1518~1578) 著. -- 木板本(重刊). --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仁祖 10(1632)序]
7卷4冊 : 四周雙邊 半郭 20.5 × 16.6 cm, 有界, 10行20字, 內向2葉花紋魚尾
; 33.9 × 22.5 cm
序: 崇禎五年(1632)十二月既望八溪後學鄭蘊謹序

당주서원에서 향사하고 있는 노진(1518~1578)의 시문집으로 玉溪는 노진의 號다. 정운의 서문 기록에 의하면 저자의 아들인 盧焞 등이 遺文을 모아 간행했으나 兵火로 板本이 遺失되었기 때문에 손자인 盧脊(1575~1643)이 인조 10년(1632)경에 증보하여 중간한 것이다.

이 판본으로 추정되는 것이 「書冊目錄」에 수록되어 있다. 고종 5년(1868)에서 同王 10년(1873)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¹³⁾ 「書冊目錄」의 各邑所在, 咸陽條에 ‘在唐洲書院’으로 所載되어 있는 ‘盧玉溪集 이다¹⁴⁾ ‘唐洲書院’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唐洲書院’의 誤記다. 또한 「書冊目錄」에는 ‘盧玉溪集’으로 所載되어 있지만, 노진의 姓과 號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玉溪先生文集」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이 장판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판본이 아래의 것으로, 그 추정

13) 趙婷化, “朝鮮朝後期 嶺南官板本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教 大學院, 1996, 32.

14) 「書冊目錄」(高宗 5(1868)~10(1873)頃 寫), 1冊, 筆寫本, 鄭亨愚·尹炳泰 編著, 韓國의 冊板目錄, 下 (서울 : 保景文化社, 1995) (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國學研究叢書4), 1220.

이유는 「書冊目錄」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종 5년(1868)~10년(1873) 이전에 간인된 「玉溪先生文集」 중에 시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인 노진이 당주서원의 배향자이기 때문에 이 판본은 당주서원에서 간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간인년도는 권두에 있는 인조 10년(1632)에 정은(1569~1641)이 지은 서문의 작성 연대로만 추정된다.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46-가1207, 古3648-15-2-1-4)과 규장각(奎1406-1-4)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4.3 柏淵書院

위치: 慶尙南道 咸陽郡 咸陽邑 柏淵里

창건: 현종 11년(1670)

배향자: 崔致遠(857~?) · 金宗直(1431~1492)

현종 11년(1670)에 신라의 학자인 최치원과 조선 전기의 문신·학자인 김종직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했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고종 5년(1868)에 훼철되었는데, 한 때 栢淵祠로도 불린 적이 있다.

간인사항이 분명한 판본은 없고, 다만 책판목록에 장관기록이 있는 것이 2건이 있다. 「書冊目錄」의 各邑所在, 咸陽條에 ‘在栢淵書院’으로 所載되어 있는 ‘李蓮峯集’과 ‘尹忠獻公集’이다.¹⁵⁾ ‘李蓮峯集’은 李基高의 姓과 號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蓮峯先生文集」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고, ‘尹忠獻公集’도 尹焄의 姓과 諡號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尹忠憲公實紀」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이 장관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판본이 아래의 것들로, 그 추정 이유는 「書冊目錄」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종 5년(1868)~10년(1873) 이전에 간인된 「玉溪先生文集」과 「尹忠憲公實紀」는 아래의 판본들만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15) 「書冊目錄」(高宗 5(1868)~10(1873)頃 寫), 1220.

蓮峯先生文集 / 李基高(朝鮮) 著 ; 李相周 編. -- 木板本. --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肅宗 36(1710)跋]

7卷2冊¹⁶⁾ : 四周單邊 半郭 22.8 × 16.6 cm, 有界, 10行22字 註雙行, 內向 2葉花紋魚尾 ; 32.8 × 22.5 cm

序: 崇禎後丙戌(1646)抄[初]秋安東後人權瑛謹稿

跋: 上章攝提格(庚寅, 1710)夷則上浣八溪鄭重元跋

跋: 崇禎再庚寅(1710)九月下浣曾孫[李]相周泣血書

이기설(1556~1622)의 시문집으로 蓮峯은 이기설의 號다. 간인년도는 권말에 있는 숙종 36년(1710) 7월 上浣에 정중원이 지은 발문과 같은 해 9월 下浣에 저자의 증손인 이상주가 지은 발문의 작성 연대로만 추정된다.

저자와 서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저자인 이기설은 朴枝華(1513~1592)의 문인이고, 박지화는 徐敬德(1489~1546)의 문인이며, 서경덕은 趙光祖(1482~1519)의 계열에 속한다. 그리고 조광조는 백연서원의 배향자인 김종직 계열이다. 이처럼 저자와 서원과의 관계가 다소 먼데다, 편자인 이상주가 발문에서 간인사실을 밝히고 있으면서도 백연서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이상주가 간인한 후 집안에 책판을 보관하기가 어려워 연고가 있는 백연서원에 장판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장판기를 무시하기도 어려워 참고로 언급해둔다.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46-가1132)과 규장각(古 3428-85-1-3)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尹忠憲公實紀 / 尹光顏(朝鮮) 等編. -- 木板本. --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正祖 19(1795)跋]

上中下卷 2冊¹⁷⁾ : 圖, 四周雙邊 半郭 21.3 × 15.7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16) 국립중앙도서관장본(한古朝46-가1132)은 2책으로, 규장각장본(古 3428-85-1-3)은 3책으로 제작되어 있다. 목록기술은 국립중앙도서관장본을 따랐다.

17) 국립중앙도서관장본(한古朝57-가358)은 2책으로, 규장각장본(奎 3899, 古 3428-588)은 1책으로 제작되어 있다. 목록기술은 국립중앙도서관장본을 따랐다.

上1葉花紋魚尾 ; 30.7 × 20.3 cm

被傳者: 尹烜(1575~1637)

表題: 後村實記

序: 崇祿大夫前行吏曹判書兼知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洪良浩謹序

跋: 崇禎紀元後百六十八年龍集乙卯(1795)三月下澣五代孫 尹光顏敬書

윤전(1575~1637)의 遺文과 遺事들을 모아놓은 책으로 忠憲은 윤전의 諡號다. 권말에 있는 정조 19년(1795)에 윤광안(1757~1815)이 작성한 발문에 의해, 저자의 5대손인 윤광안, 尹光碩 등이 주도하여 수집하고, 체제는 「文獻公實紀」¹⁸⁾를 모방하여 간행했음을 알 수 있다. 간인년도는 권말에 있는 정조 19년(1795)에 윤광안이 지은 발문의 작성 연대로만 추정된다.

피전자와 서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피전자인 윤전은 成渾의 문인으로 백연서원의 배향자인 김종직 계열이다. 위에서 언급한 「蓮峯先生文集」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자와 서원과의 관계가 다소 먼데다, 편자인 윤광안이 발문에서 간인 사실을 밝히고 있으면서도 백연서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윤광안 등이 간인한 후 집안에 책관을 보관하기가 어려워 연고가 있는 백연서원에 장판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이 판본 역시 장판기를 무시하기도 어려워 참고로 언급해둔다.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한 古朝57-가358), 규장각(奎 3899, 古 3428-588)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4.4 西山書院

위치: 慶尙南道 咸陽郡 西下面 鳳田里

창건: 현종 7년(1841)

배향자: 全五倫(高麗)

18) 同鄉의 濼溪書院에서 영조 19년(1743)에 간인한 중간본으로 추측된다.

현종 7년(1841)에 고려 공민왕 때의 문신으로 杜門洞 72賢 중의 한 사람인 전오륜(고려)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했다. 서원이 세워진 鳳田마을은 전오륜의 후손이 조선 인조 때 거창군 마리면에서 이곳으로 옮겨와서 개척한 마을로, 그 후 田氏들의 집성촌으로 내려온 곳이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고종 5년(1868)에 훼손되었는데, 한 때 西山祠로도 불린 적이 있다. 이 서원에서 간인된 판본은 「採薇軒全先生實記」 뿐이다.

採薇軒全先生實記 / 全秉祐(朝鮮) 等編. -- 木活字本(重刊). -- [安義] : 西山書院, 高宗 3(1866)

上下卷1冊. 上下雙邊 左右單邊 半郭 19.9 × 14.5 cm, 有界, 8行18字 註雙行, 內向上3葉下2葉花紋魚尾 ; 32.0 × 19.5 cm

被傳者: 全五倫(高麗)

序: 牧隱十六代孫原任奎章閣堤學大匡輔國崇祿大夫行判敦寧府事李景在謹序

序: 圃隱十五代孫判書鄭文升謹序

序: 圃隱十五世孫通政大夫前行承政院左副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鄭煥翼記

序: 上之六年己巳(1809) 孟春下澣西原韓致肇謹序

序: 崇禎紀元後四己巳(1809) 流頭日通訓大夫安義縣監藩南朴憲陽謹序

序: 崇禎四癸巳(1833) 榴夏下澣嘉善大夫慶尙觀察使安東金陽淳敘

序: 崇禎四甲午(1834) 仲夏下澣知縣徐有畚謹序

跋: 崇禎紀元後四丙寅(1866) 端陽日通訓大夫安義縣監首陽吳達善謹跋

刊記: 崇禎紀元後四丙寅(1866) 夏西山書院重刊

전오륜(고려)의 행적을 모은 책으로, 권말에 있는 오달선의 발문에 의하면 후손인 全一壽가 순조 33년(1833)에 유고와 관련된 문서들을 모아 편찬하려 하였으나, 그 후 보충자료를 더 수집하여 출간한 것으로 보인다.

권말에 ‘崇禎紀元後四丙寅(1866)夏 西山書院 重刊’이라는 간기가 있어서 순

조 33년(1833) 여름에 서산서원에서 중간했음을 알 수 있다. 간기에 간인지 표시는 없다. 당시에 서산서원으로 불리던 곳은 이 곳 외에 密陽 縣 惠山書院, 咸安, 尙州, 安東, 大邱, 全州, 平壤 등에도 있었으나, 전오륜을 배향하고 있는 곳은 이곳의 서산서원 뿐이다. 배향자의 實記를 간인한 경우가 많았던 관례에 비추어 이 서원의 간인본임이 분명하다.

서원이 있는 서하면은 1914년 3월 1일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함양군으로 편입되기 전까지는 안의군에 속해 있었고, 안음을 안의로 고친 때는 영조 43년(1767)이기 때문에 순조 33년(1833) 당시의 간인지는 安義가 될 것이다. 인본은 고려대학교(B12-A187), 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57-기62), 규장각(奎 12021), 장서각(2-832) 등 여러 곳에서 소장하고 있다.

4.5 松湖書院

위치: 慶尙南道 咸陽郡 瓶谷面 松坪里 503

창건: 순조 30년(1830)

배향자: 李智活(1434~?) · 李어(?~?) · 李之蕃(1469~1522)

순조 30년(1830)에 조선 초기의 충신인 이지활(1434~?)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였다. 순조 32년(1832)에 세종의 아들인 이어와 이지활의 손자이며 조선 초기의 학자인 이지번(1469~1522)을 추배하였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고종 8년(1871)에 훼철되었으며, 1937년에 복원하였다. 1994년 7월 4일에 경상남도문화재자료 제209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이 서원에서 간인된 판본은 「孤隱先生實記」 뿐이다.

孤隱先生實記 / [編者未詳]. -- 木活字本. -- [咸陽]: 松湖書院, 純祖 23(1823)序

2卷1冊: 四周單邊 半郭 21.5 × 17.0 cm, 有界, 10行21字 註雙行, 內向上3葉下

2葉花紋魚尾 ; 30.6 × 20.4 cm

被傳者: 李智活(1434~?)

版心題: 孤隱先生文集

序: 上之二十三年癸未(1823) 嘉善大夫吏曹參判兼弘文館提學奎章閣直提學豊山洪奭周謹序

序: 崇禎卽位元年戊辰(1628) 八月扶風金壽民謹書

序: 崇禎紀元後三丁卯(1807) 七月進士京山李禹世謹書

跋: 前洗馬延安李度中

附: 疏錄

有司記: 有司李春○

印記: 松湖書院開印

이지활(1434~?)의 實記로서 孤隱은 이지활의 號다. 권말에 ‘松湖書院 開印’이라는 인기가 있어서 송호서원에서 인출했음을 알 수 있다. 간기에 간인지 표시는 없다. 송호서원은 이 곳 외에 陝川과 軍威에도 있었으나, 이지활을 배향하고 있는 곳은 이곳의 송호서원 뿐이다. 배향자의 實記를 간인한 경우가 많았던 관례에 비추어 이 서원의 간인본임이 분명하다.

서원이 위치하고 있는 병곡면은 순조 32년(1832) 당시 함양군 소속이었으므로 간인지는 咸陽이 될 것이다. 인본은 국립중앙도서관(古2511-62-187, 古2511-62-187=2), 장서각(B9I-250)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 책을 찍는데 사용된 목활자가 소위 ‘松湖書院印書體字’ 혹은 ‘松湖書院字’라고 불리는 활자로 아직 연구되지 아니한 활자이다.

4.6 龍門書院

위치: 慶尙南道 咸陽郡 安義面 鳳山里

창건: 선조 16년(1583)

배향자: 鄭汝昌(1450~1504) · 林薰(1500~1584) · 林崧(1517~1572) · 鄭蘊(1569~1641)

성종 25년(1494)년부터 5년간 安義縣監으로 재임한 조선조 五賢의 한 사람인 名儒 정여창이 학교를 일으키고 인정을 베푸는 등 善政한 것을 추모하기 위해 선조 16년(1583)에 창건하였다. 선조 19년(1586)에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인 임훈과 그의 아우인 조선 중기의 학자 임운을 추배하고, 인조 20년(1642)에는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인 정운을 추배하였다. 현종 3년(1662)에 사액을 받았지만, 고종 5년(1868)에 훼손되었다. 이 서원에서 간인된 판본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葛川先生文集 / 林薰(朝鮮) 著. -- 木板本. -- [安陰]: [龍門書院], 顯宗 6(1665)序

4卷2冊: 四周雙邊 半郭 24.0 × 16.5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內向有紋魚尾 ; 31.7 × 20.7 cm

序: 崇禎乙巳(1665)陽月日恩津宋時烈序

임훈(1500~1584)의 시문집이다. 임훈의 號는 自怡堂이었다가 뒤에 枯查翁으로 고쳤는데, 사람들이 통상 葛川先生이라 불렀다. 그가 갈천선생으로 불린 이유는 증조부인 林天年이 함양으로부터 安陰(현 安義面)의 갈천마을로 이사 와서 살았던 지명에서 유래한 것이다.

권두에 있는 현종 6년(1665) 10월에 작성한 송시열(1607~1689)의 서문에 의하면, 저자의 증손이 兵火에 손실된 遺文을 모아¹⁹⁾ 편찬, 간행하였다고 한다. 이 책에는 간기가 없으며, 특이하게도 간인사실을 적어 놓는 경우가 많은 발문조차 없어서 간인사실을 알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다행히도 陶山書院 西光明室에 뒷 표지 이면에 ‘己亥年 3월에 龍門書院에서 인쇄하여 보내다’²⁰⁾라는

19) “...先生曾孫 收拾衰集遺文 於兵燼之餘 得略干篇 ...”

목서기가 있는 후쇄본이 소장되어 있어서 간인처를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己亥年은 송시열이 서문을 작성한 현종 6년(1665) 이후의 첫 번째 기해년인 숙종 45년(1719)²¹⁾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목서기는 다음에 기술할 『桐溪先生文集』과 『瞻慕堂先生文集』의 도산서원 서광명실 소장본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 같은 시기에 용문서원에서 함께 인쇄되어 도산서원으로 보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목서기의 기록에도 인출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 책의 간인 무렵에 용문서원이라 불리던 곳은 이 곳 외에 경기도 楊平²²⁾에도 있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어느 지역의 용문서원이었는지는 분명해진다.

첫째, 이 책의 저자인 임훈은 함양의 용문서원에서는 배향하고 있지만 양평의 용문서원에서는 배향하고 있지 않다. 서원에서는 배향자의 문집을 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책과 함께 인쇄되어 도산서원으로 보내진 『桐溪先生文集』과 『瞻慕堂先生文集』에도 동일한 내용의 목서기가 있는데, 『桐溪先生文集』은 정온(1569~1641)의 시문집이고 『瞻慕堂先生文集』은 임운(1517~1572)의 시문집으로, 저자들인 임훈·정온·임운은 모두 함양의 용문서원에서 배향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셋째, 徐有榘(1764~1845)가 현종 1년(1835)에 편찬 완성한 『林園十六志』의 怡雲志 7, 圖書藏訪, 京外鏤板, 集類條 에²³⁾ 있는 ‘葛川集 四卷’과 정조 20년(1796)에 편찬이 끝난 『鏤板考』, 集部 上의 別集類 上에²⁴⁾ 있는 ‘葛川文集 四卷

20) “己亥季春 龍門書院 印送”

21) ① 李春熙, 『朝鮮朝의 教育文庫에 관한 研究』(서울: 景仁文化社, 1984), 110, 『桐溪先生文集』

② 裴賢淑, “紹修書院 收藏과 刊行 書籍考,” 『書誌學研究』 第31輯(2005. 9), 287, <표 3-3>.

22) 선조 27년(1594)에 龍門書院으로 창건하였으며, 숙종 39년(1713)에 雲溪書院으로 사액 받았다.

23) 徐有榘 編, 『林園十六志』, 卷105, 怡雲志 7, 圖書藏訪, 京外鏤板, 鄭亨愚·尹炳泰 編著(1995), 885.

24) 徐有榘 著, 洪命憲 校訂, 『鏤板考』 7卷1冊, 鉛印本(京城: 大同出版社, 昭和16(1941)),

이 각각 ‘安義 龍門書院’에 藏板되어 있는 것으로 所載되어 있다. 따라서 도산서원 서광명실 소장본의 뒷 표지 이면에 기록되어 있는 용문서원이 함양군에 所在한 용문서원이라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

한편, 간인년도는 서문의 작성년도에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다. 송시열이 서문을 작성한 현종 6년(1665)은 용문서원이 사액을 받은 현종 3년(1662)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때라, 당시에 배향자에 대한 顯彰事業의 일환으로 문집이 刊刻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위와 같이 간인이 현종 6년(1665)에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에 당시 간인지의 명칭은 安陰이다. 용문서원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태종 때 안음현이 된 후, 안음을 안의로 고쳐 안의현으로 된 것은 영조 43년(1767)의 일이기 때문이다.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한 古朝46-가159, 우촌古3648-63-5), 규장각(古 3428-156-1-2, 奎 5277--1-2), 도산서원(서광명실)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桐溪先生文集 / 鄭蘊(朝鮮) 著 ; 鄭省峴(朝鮮) 等編. -- 木板本. -- [安陰]
: [龍門書院], 顯宗 8(1667) 跋
4卷4冊, 附錄2卷1冊, 共5冊 : 四周雙邊 半郭 17.9 × 15.3 cm, 有界, 9行18字
註雙行, 內向3葉花紋魚尾 ; 31.4 × 21.6 cm
序: 庚子(1660) · 趙綱 ···
跋: 上之八年(1667) · 許穆 ···

정은(1569~1641)의 시문집으로 桐溪는 정은의 號들 중 하나다. 저자의 후손인 鄭省峴(朝鮮) 등이 현종 1년(1660)에 엮어 두었다가 후일 간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도 간기가 없다. 그러나 앞서 「葛川先生文集」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밝혔듯이, 도산서원 서광명실 소장 후쇄본의 뒷 표지 이면에 「葛川先生文集」에 있는 것과 동일한 목서기가 있어서 간인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또한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간인지도 짐작할 수 있다. 즉, 이 책의 저자인

鄭亨愚 · 尹柄泰 編著 (1995), 1095.

정은은 함양의 용문서원에서는 배향하고 있지만, 양평의 용문서원에서는 배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林園十六志」, 怡雲志 7, 圖書藏訪, 京外鑲板, 集類條에²⁵⁾ 있는 ‘桐溪集 六卷’과 「鑲板考」, 集部 下の 別集類 下에²⁶⁾ 있는 ‘桐溪文集 四卷, 附錄 二卷’이 각각 安義 龍門書院에 장판되어 있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3종의 책에 나타나는 동일한 목서기와 관련해서는 「葛川先生文集」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이다.

간인년도는 조경(1586~1669)이 작성한 서문과 허목(1595~1682)이 작성한 발문의 작성년도에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서·발문의 작성년도가 각각 干支紀年과 ‘上之’를 이용한 卽位紀年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우선 서문의 작성년도는 庚子年인데, 조경은 선조 19년(1586)에 태어나 현종 10년(1669) 83세의 나이에 죽었으므로 생애 동안 庚子年은 14세 때인 선조 33년(1600)과 74세 때인 현종 1년(1660)의 두 번이다. 14세 때에 문집의 서문을 썼을 리는 없으므로 당연히 서문의 작성 연대는 현종 1년(1660)이다.

다음으로 발문의 작성 연대에 대해서 살펴보면, 발문에는 그 책의 간인사실이 적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문의 작성 연대는 서문의 그것과 같은 해이거나 그보다 늦은 해로 나타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선조 28년(1595)에 태어나 숙종 8년(1682) 87세의 나이에 죽은 허목의 생애 중에서 서문의 작성 연대인 현종 1년(1660) 이후의 ‘上之八年’은 72세 때인 현종 8년(1667)과 87세로 죽은 해인 숙종 8년(1682)의 두 번이다. 건강 등을 고려한다면 72세 때인 현종 8년(1667)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런데 용문서원에서 간인한 다른 2종의 판본을 살펴보면, 「葛川先生文集」에는 현종 6년(1665)의 서문이 있고, 다음에 거론할 「瞻慕堂先生文集」에는 현종 10년(1669)의 서문이 있어서 각각 그 해에 인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책 발문의 작성 연대를 현종 8년(1667)으로 본다면 앞의 두 책의 간행 사이에 들어가면서 각각 2년 터울이 되고, 숙종 8년(1682)으로 본다면 맨 나중에 되면서 각각 4년과 13년 터울이 된다. 앞서 「葛川先生文集」

25) 徐有渠 編, 「林園十六志」, 895.

26) 徐有渠 著, 洪命熹 校註, 「鑲板考」, 1139.

부분에서 밝혔듯이, 현종 3년(1662)에 사액을 받은 후 배향자들에 대한 顯彰事業의 일환으로 문집의 간행이 계획되었다면, 사액을 받은 후 3년 후부터 서원의 재정을 고려하여 세 배향자의 문집을 2년 터울로 연차적으로 간행한 것은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따라서 이 책의 발문은 허목의 나이 72세 때인 현종 8년(1667)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책의 간인 역시 이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일부 목록과 글에서 발문의 작성 연대를 숙종 8년(1682)으로 기록한 것은 잘못으로 생각한다.

간인년도가 현종 8년(1667)으로 짐작되기 때문에 안의현으로 바뀐 영조 43년(1767) 이전이므로 당시 간인지의 명칭은 安陰이다. 판본은 규장각奎 5186--1-5)과 도산서원(서광명실)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瞻慕堂先生文集 / 林芸(朝鮮) 著. -- 木板本. -- [安陰]: [龍門書院], 顯宗 10(1669)序

3卷2冊: 四周單邊 半郭 23.3 × 17.0 cm, 有界, 10行22字 註雙行, 內向黑魚尾; 33.0 × 21.6 cm

序: 崇禎屠維作噩(己酉, 1669)長玉恩津宋時烈序

임운(1517~1572)의 시문집으로 瞻慕堂은 임운의 號들 중 하나다. 이 책에도 역시 간기가 없지만, 도산서원 서광명실 소장본에 목서기가 있는 후쇄본이 있으므로 간인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또한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간인지도 짐작할 수 있다. 즉, 이 책의 저자인 임운은 함양의 용문서원에서는 배향하고 있지만, 양평의 용문서원에서는 배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林園十六志」, 怡雲志 7, 圖書藏訪, 京外鏤板, 集類條에²⁷⁾ 있는 ‘瞻慕堂集 三卷’과 「鏤板考」, 集部 上의 別集類 上에²⁸⁾ 있는 ‘瞻慕堂文集 三卷’이 각각 安義 龍門書院에

27) 徐有渠 編, 「林園十六志」, 885.

28) 徐有渠 著, 洪命熹 校註, 「鏤板考」, 1095.

장판되어 있는 것으로 소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3종의 책에 나타나는 동일한 목서기와 관련해서는 「葛川先生文集」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이다.

간인년도는 송시열(1607~1689)이 현종 10년(1669)에 작성한 서문의 작성년도에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역시 그 해에 간인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간인년도가 현종 8년(1667)으로 짐작되기 때문에 안의현으로 바뀐 영조 43년(1767) 이전이므로 당시 간인지의 명칭은 安陰이다.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한古 46-가219)과 도산서원(서광명실)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5. 판본의 성격

5.1 주제

판본들을 사부법의 주제별로 분류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판본의 주제 분류

서원/간행여부	부류	經部	史部		集部	계	
		小學類	傳記類	譜系類	別集類		
濼溪書院	확실	童蒙須知	文獻公實紀(1635) 文獻公實紀(1743)	河東鄭氏派譜	介庵先生文集(1706) 介庵先生文集(1846)	6	6 (8)
	불확실		文獻公實紀(1689)		介庵先生文集(1686)	(2)	
澹洲書院	불확실				玉溪先生文集		(1)
柏淵書院	불확실		尹忠憲公實紀		蓮峯先生文集		(2)
西山書院	확실		採薇軒全先生實記				1
松湖書院	확실		孤隱先生實記				1
龍門書院	확실				葛川先生文集 桐溪先生文集 瞻慕堂先生文集		3
계		1	4(6)	1	5(8)		11(16)
			5(7)				

* () 안의 숫자는 간인이 불확실한 판본까지 포함한 수이다

* 서명 뒤에 있는 () 안의 년도는 동명이판본을 구별하기 위해 관련 있는 년도를 붙인 것이다

전체 16종의 판본들 중 조선시대에 함양의 서원들에서 간인된 것이 확실한 판본은 11종이고 불확실한 판본은 5종이다. 간인이 확실한 판본만 살펴보면, 11종의 판본들 중 가장 많은 주제는 史部和 集部に 속하는 것으로 각각 5종씩이며, 각각 전체의 약 45%씩에 해당한다. 史部에서는 傳記類에 속하는 것이 4종이고, 나머지 1종은 譜系類이다. 集部에서는 5종 모두가 別集類이다. 經部에는 小學類에 1종이 있고, 子部에 속하는 것은 없다.

불확실한 판본까지 포함하여 살펴보면, 16종의 판본들 중 가장 많은 주제는 集部に 속하는 것으로 8종이며 전체의 50%에 해당되고 모두가 別集類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주제는 史部に 속하는 것으로 7종이며 전체의 약 44%에 해당되는데, 傳記類에 속하는 것이 6종이고 나머지 1종은 譜系類이다. 經部에는 小學類에 1종이 있고, 子部에 속하는 것은 없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에 함양의 서원들에서는 集部の 別集類와 史部の 傳記類를 주로 간인했음을 알 수 있다.

4.2 판종

총 16종의 판본은 목판본과 목활자본의 두 종류로 대별할 수 있다. 그 중 목판본이 13종으로 약 81%를 차지하고 나머지 3종 약 19%만이 목활자본이다. 목활자본들 중 송호서원에서 인출한 「孤隱先生實記」는 소위 「松湖書院印書體字」 혹은 「松湖書院字」라고 불리는 목활자로 찍었으며, 이 활자를 포함하여 나머지 두 목활자본을 찍은 목활자들도 아직 연구되지 아니한 지방 목활자들이다.

이들 판본들을 간인년도순으로 정렬하여 목판과 목활자의 사용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판본들 중에 간인년도가 불분명한 것은 추정년도 혹은 관련년도로 대신하였으며, 간인이 불확실한 판본은 []로 구분하였다.

「玉溪先生文集」(1632) 木板本 → 「文獻公實紀」(1635) 木板本 → 「童蒙須知」(1641) 木板本 → 「葛川先生文集」(1665) 木板本 → 「桐溪先生文集」(1667) 木板本 → 「瞻慕堂先生文集」(1669) 木板本 → 「介庵先生文集」(1686) 木板本 → 「文獻公

實記』(1689) 木板本] → 『介庵先生文集』(1706) 木板本 → [『蓮峯先生文集』(1710) 木板本] → 『文獻公實記』(1743) 木板本 → [『尹忠憲公實記』(1795) 木板本] → 『孤隱先生實記』(1823) 木活字本 → 『介庵先生文集』(1846) 木板本 → 『採薇軒全先生實記』(1866) 木活字本 → 『河東鄭氏派譜』(1897) 木活字本

이를 살펴보면, 17C와 18C에는 목판본만 있고 목활자의 사용은 순조 23년(1823)에 『孤隱先生實記』를 인출할 때부터 시작되어 19C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C에 들어서는 새로 책을 낼 때 비용이 많이 드는 刻板은 점차 줄어들고 대신 비용이 적게 드는 목활자를 많이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제는 상식화되어 있는 일반 인쇄사적인 경향과 일치하며, 필자의 예림서원판본에 대한 선행연구의 분석결과와도 일치한다.²⁹⁾

4.3 간인의 경향과 배향자와의 관련성

1.에서 밝힌바와 같이 서원의 기본적인 두 가지 주요 기능은 강학과 제향이며, 서원의 간인사업은 이러한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우선 강학을 위해서는 배향하면서 추종하고 있는 배향자의 사상과 학문을 배우기 위한 배향자의 문집과 일반적인 교재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제향과 관련해서는 배향자를 顯彰하기 위한 배향자의 문집과 실기의 간인, 특히 문중서원일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배향자 가계의 족보와 선조 및 후손의 문집 및 실기의 간인 등이 행해졌을 것이다. 결국 강학과 제향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통틀어 배향자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서적의 간인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선시대 함양의 서원판본들도 배향자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표 5>와 같이 16종의 판본 모두가 배향자와 직·간접으로 관련 있는 것들뿐이다.

29) 윤상기, “密陽 禮林書院版本考,” (동의대학교 문화콘텐츠연구소) 『인문학과 문화』(2004. 2) (문화콘텐츠연구 - 9), 367-402.

<표 5> 판본과 배향자의 관련성

관련성		版本	종수/비율(%)	
배향자 관련 판본	직접 관련	저자	5 / 45.5 (7 / 43.8)	9 / 81.8 (12 / 75.0)
		被傳者	4 / 36.4 (5 / 31.3)	
	간접 관련	先祖 관련	1 / 9.1 (1 / 6.3)	2 / 18.2 (4 / 25.0)
		譜系類	1 / 9.1 (1 / 6.3)	
		정치·학 문적 관련	2 / 12.5	
			11 / 100 (16 / 100)	

* []로 표시한 판본은 간인이 불확실한 판본이다.

* () 안의 숫자는 간인이 불확실한 판본까지 포함한 수이다

* 서명 뒤에 있는 () 안의 년도는 동명이판본을 구별하기 위해 관련 있는 년도를 붙인 것이다

간인이 확실한 판본만 살펴보면, 배향자와 직접 관련된 판본이 전체 11종 중 9종으로 약 82%를 차지하며, 2종 약 18% 만이 간접으로 관련된 판본들이다. 배향자와 직접 관련된 판본들 중에는 저자인 경우가 5종 약 46%이고, 피전자인 경우가 4종 약 36%이다. 배향자와 간접으로 관련되는 판본들은 선조와 관련된 저작과 족보이다.

불확실한 판본까지 포함하여 살펴보면, 배향자와 직접 관련된 판본이 전체 16종 중 12종으로 75%를 차지하며, 4종 25% 만이 간접으로 관련된 판본들이다. 배향자와 직접 관련된 판본들 중에는 저자인 경우가 7종이고 피전자인 경우가 5종이다. 배향자와 간접으로 관련되는 판본들은 선조와 관련된 저작, 족보 각 1종외에 배향자와 정치적 또는 학문적으로 연관된 인물의 저작 2종이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에 함양의 서원들에서는 배향자와 관련된 서적을 많이 간인했으며, 특히 배향자와 직접 관련된 배향자의 문집이나 실기를 주로 간인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서원들에서는 강학을 위한 일반적인 교재도 필요했을 텐데 전혀 간인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그러한 서적들은 어느 한 서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육기관이나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나

공교육기관 혹은 상업적인 출판사에서 대량으로 간인하여 유·무상으로 공급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그러한 서적들을 구입 또는 기증받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 이었을 것이다. 다만 간혹 서원들에서 일반적인 교재를 간인하는 경우는 교환이 나 재정 조달을 위한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그 서적이 배향자와 직·간접 으로 관련이 있을 때였던 것으로 보인다.

5. 나오면서

지금까지 함양의 서원들에서 간인한 판본들을 살펴보았다. 그 중 간인사실이 확실한 것은 11종으로, 「文獻公實紀」(1635),³⁰⁾ 「童蒙須知」, 「介庵先生文集」 (1706), 「文獻公實紀」(1743), 「介庵先生文集」(1846), 「河東鄭氏派譜」, 「採薇軒 全先生實記」, 「孤隱先生實記」, 「葛川先生文集」, 「桐溪先生文集」 및 「瞻慕堂 先生文集」이다. 간인사실이 불확실한 것은 5종으로 「介庵先生文集」(1686), 「文 獻公實紀」(1689), 「玉溪先生文集」, 「蓮峯先生文集」 및 「尹忠憲公實紀」이다. 이들 판본들에 대해서는 서지사항을 정밀기술하고 서원판본임을 밝히거나 간인 가능성을 제시했다.

판본의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들을 밝혔다.

첫째, 集部의 別集類와 史部의 傳記類를 주로 간인했다.

둘째, 17~18C에는 목판본으로만 간인하고 19C에는 목활자본을 많이 간인했다.

셋째, 16종의 판본 모두가 배향자와 직·간접으로 관련 있는 것들이며, 특히 배향자와 직접 관련된 배향자의 문집이나 실기를 주로 간인했다.

30) 이하 서명 뒤에 있는 () 안의 년도들은 동명이판본을 구별하기 위해 관련 있는 년도를 붙인 것이다.

<참고문헌>

- http://www.hamyang.go.kr/kor/frame.asp?top=/kor/inc/topmenu.asp&main=/kor/hamyang/01_01.asp (2005. 8. 1 검색)
- KOSIS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nso.go.kr/> (2005. 8. 13 검색)
- 裴賢淑. “紹修書院 收藏 과 刊行 書籍考.” 『書誌學研究』 第31輯 (2005. 9), 263-296.
- 徐有榘 著, 洪命憲 校訂. 『鏤板考』. 7卷1冊, 鉛印本. 京城: 大同出版社, 昭和16(1941). 鄭亨愚·尹炳泰 編著. 『韓國의 冊板目錄』, 下. 서울: 保景文化社, 1995. (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國學研究叢書 4), 909-1174.
- 徐有榘 編. 『林園十六志』, 卷105, 怡雲志 7, 圖書藏訪, 京外鏤板. 鄭亨愚·尹炳泰 編著. 『韓國의 冊板目錄』, 下. 서울: 保景文化社, 1995. (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國學研究叢書 4), 853-903.
- 안장헌 사진, 이상혜 글. 『書院』. 서울: 열화당, 1998.
- 元永煥. “江原地方의 書院址 調査.” 韓國鄉土史研究全國協議會 편. 『毀撤書院 調査報告』. [慶山市]: 韓國鄉土史研究全國協議會, 1993. (鄉土史研究叢書 第4冊), 41-64.
- 윤상기. “密陽 禮林書院版本考.” (동의대학교 문화콘텐츠연구소) 『인문학과 문화』(2004. 2) (문화콘텐츠연구 - 9), 367-402.
-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서울: 一潮閣, 1995.
- 李春熙. 『朝鮮朝의 教育文庫에 관한 研究』. 서울: 景仁文化社, 1984.
- 鄭萬祚. “서원 書院 서원의 전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2. 성남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11-13.
- 丁淳睦. 『韓國書院教育制度研究』. [대구]: 嶺南大學校出版部, 1979.
- 趙婷化. “朝鮮朝後期 嶺南官板本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敎大學院, 1996.
- 함양군수인물역사연표 咸陽郡守人物歷史年表.

<http://www.hamyang.org/yuksa%20yunpyo.htm> (2005. 8. 5 검색)

「書冊目錄」, 高宗 5(1868)~10(1873)頃 寫, 1冊, 筆寫本. 鄭亨愚·尹炳泰 編著.
「韓國의 冊板目錄」, 下. 서울: 保景文化社, 1995. (延世大學校 國學研
院 國學研究叢書 4), 1185-1227.



к с і